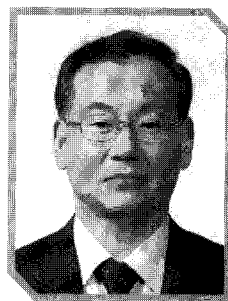


정부는 각종 정책대안들의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 장 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사료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격월간 사료』를 발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임직원, 편집위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60년대 도입단계에서 70~80년대 양적인 성장단계를 거쳐 90년대부터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격월간 사료』는 이 과정에서 사료산업 정보 및 기술의 제공 등을 통해 사료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개방화를 맞이하여 한미 FTA협상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료·비료·유류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와 경쟁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한 농수산식품산업을 구현하는 한편,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켜 농어업 경영을 돕고,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강한 농수산식품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수산식품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농어촌은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풍요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비의 30~60% 정도를 배합사료가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업계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 등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품목의 저율관세 확대,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조 5천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료곡물 가격 및 해상운임 변동 등에 따른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료업체에 사료원료구매 및 사료제조시설자금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급육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 조사료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남아, 연해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옥수수, 콩과 같은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사료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시되는 정책대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료산업 및 축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격월간 사료』가 사료를 식품처럼 안전한 21세기형 사료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이창범 축산정책단장 주요경력

- ▷ 강원 영월 출생(60년생)
- ▷ 행정고시 27회
- ▷ 학력
 - 1977년 춘천제1고등학교 졸업
 - 1982년 서울대 과학교육과 졸업
 - 198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 1991년 NORTH DAKOTA주립대 농업경제학과 석사졸업
- ▷ 주요경력
 - 1984 행정고등고시 27회
 - 1986.03 ~ 차관실비서관
 - 1996.01 ~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 1998.07 ~ 정책실장실 정책상황행정관, 정책수석실 정책조정행정관
 - 2004.01 ~ 농산물유통국유통정책과장, 정책홍보관리관실 재정기획관
 - 2008.03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량정책단장
 - 2009.02.20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장